

107도까지...1880년 이후 가장 더운 일본

강수량 역대 최저 댐에도 가뭄...벚꽃 안 피기도



▲ 지난달 23일 일본 사이타마현 구미가야 시에서 기온을 나타내는 전광판에 섭씨 41도의 기온이 표기돼 있다. 사진=AP/뉴시스

관광 명소인 교토에서는 기온이 104도(섭씨 40도)까지 치솟아 1880년에 이후 일본 내 모든 관측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7월이 1898년 이래 가장 더운 7월이었으며,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2.89도나 높았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일부 댐과 논에서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민들은 극심한 더위와 강수 부족으로 인해 벼농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동해에 접한 북부 지역은 7월 강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서일본 지역의 장마는 예년보다 약 3주일찍 끝났다. 이 역시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기후 변화는 일본의 대표적인 자연 상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으로 벚꽃이 너무 일찍 피거나, 가을과 겨울이 충분히 춥지 않아 제대로 개화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에는 후지산을 상징하는 눈 덮인 정상이 평균보다 한 달이나 늦은 11월 초에야 나타났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

일본 당국은 매년 여름 시민들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해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일본의 고령자들이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5일 하루에만 역대 최고 기온을 두 번 경신한 가운데 기상청이 향후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일본 군마현 이세사키시에서는 기온이 106.88도(섭씨 41.6도)를 기록한 데 이어 곧바로 107.24도(섭씨 41.8도)까지 치솟았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호고현에서 기록된 기존 최고치인 106.16도(섭씨 41.2도)를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일본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을 기록했고, 가을에도 126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계절로 기록됐다.

“백인 농장주, 흑인 여성 죽여 시신 돼지에”

살해 증거 없애려...남아공서 전국적 분노 확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 농장주와 농장 노동자들이 흑인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돼지에게 먹였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전국적인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아드리안 데 웻(20)은 지난해 림포포주 폴로라네 인근 농장에서 식량을 찾던 마리아 마카토(45)와 루시아 은들로부(34)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돼지 우리에 버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데 웻은 검찰 측 증인이 돼 농장주 자카리아 요하네스 올리비에(60)가 두 여성을 총으로 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농장의 감독자로서 올리비에의 강요로 시신을 돼지 우리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러한 진술을 확인했다. 법원이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면 데 웻에 대한 모든 혐의는 취해질 전망이다.

마카토와 은들로부는 돼지 사료로 쓰이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유제품을 찾기 위해 농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윌리엄 무소라(50)는 올리비에와 함께 아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



▲ 오른쪽부터 농장주 자카리아 요하네스 올리비에와 농장직원 아드리안 데 웻, 윌리엄 무소라. 사진=연합뉴스

다리고 있다. 세 사람은 은들로부의 남편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로 살인미수, 불법 총기 소지, 시신 유기 등 방화사실은페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소라는 짐바브웨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남아공 이민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남아공 전역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인종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아프리카트헤이트 종식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농지가 백인 소유이며 농장 노동자들은 주로 저임금 흑인으로 구성돼 있어 불만이 깊다. 반면 백인 농장주들은 높은 범죄율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림포포 고등법원에는 재판을 지켜보려는 유족과 지지자들이 가득 모였으며, 올리비에의 아내도 방청석 전면에서 앓아 누운 모습을 목격했다. 농장 폐쇄를 주장해온 야당 경제자유투사당(EFF) 관계자들도 법정에서 참석했다.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홈 파티 케이터링 환영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